



제목	Caria and Crete in Antiquity: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Anatolia and the Aege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 8. 25.
저자	Naomi Carless Unwin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84
ISBN 또는 ISSN	978-1107194175

**내용 요약**

그리스 문화에 동화된 지역의 하나인 카리아는 에게 해 연안의 그리스 도시들과 내륙의 산악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산악지방의 북쪽은 리디아와 맞닿아 있었고, 동쪽은 프리지아 및 리키아와 맞닿아 있었다. 카리아는 기원전 546년경에 리디아에서 페르시아로 복속되었으나 서부 카리아의 왕국들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에 대항하는 이오니아 반란(기원전 499경~493)에 가담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여 페르시아 제국에 병합되어 아파다나 궁전 부조의 21번째 조공단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그들의 복식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망토형 히마티온과 페르시아의 바지인 아낙시리테스를 착용함으로써 동서양의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고대 미노스 문명의 발상지로서 그리스 청동기 시대의 고대 문명이라 할 수 있는 크레타는 카리아와 오래된 고대 그리스 전통을 공유하였는데 이 지역 역사의 중심 주제는 남서부 아나톨리아의 신화, 종교 숭배 및 동성애에 반영되었다.

이 책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두 지역의 접촉에 비추어 신화를 고찰하여 그러한 상호 작용과 역사적으로 지속된 관련성이 고전과 헬레니즘 시대의 접촉에 비추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통이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려된다. 원래 카리아인은 아나톨리아 사람들이었으나, 그리스 세계의 신화적 틀과의 통합은 에게 해와의 상호 작용이 역사의 근본적인 측면임을 드러내고 있다.